



‘괘’ 보다 멋진 너



김 소 림 • 남양주 호평초등학교 3학년

“난 여름방학 때 괘 간다~~!”

“우린 이번에 아빠가 하와이 간대.”

“소림이 넌?”

“우린 울릉도 갈 거야. 거기 이모가 살거든.”

“울릉도 트위스트? 호박엿? 하하하! 그런데 울릉도는 제주도 옆에 있는 거야?”

“글쎄,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엄마가 포항에서 배타고 간다고 했어.”

사실 친구들이 물었을 때 멋지게 대답하고 싶었는데, 울릉도가 어디쯤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 좀 창피했다. 또 나도 친구들처럼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에 속상하기도 했다. 아무튼 집에 오자마자 지도책을 펼쳐 놓고 울릉도를 찾기 시작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모가 살고 있는 울릉도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섬이니까 바닷가 쪽이겠고 외갓집 포항에서 배를 탄다고 했으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동해’라는 바다가 있고 거기 한가운데 작은 점만한 울릉도가 있었다.

‘에게……., 겨우 요만해?’

기분이 묘했다.

‘이모가 이렇게 멀리 살고 있었구나, 빨리 만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우리 엄마의 고향은 포항,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 지도에서 땅 모양을 봤을 때 호랑이가 엮드린 모습과 비슷하고 그 호랑이의 꼬리 부분을 한자로 ‘호미꽃’이라 한다고 하셨다. 이걸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할머니 댁에서 선착장까지 가서 울릉도로 가는 ‘썬플라워호’를 탔다. 이모는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울릉도로 발령을 받았다. 그 덕분에 내가 울릉도를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여행의 최정예 멤버는 바다낚시를 꿈꾸시는 할아버지, 울릉도 산나물과 매운탕을 드실 수 있다는 기대로 가득하신 할머니, 코끼리바위에서 인생사진을 찍으시겠다는 엄마, 생애 첫 스노클링에 도전하는 동생과 나이다. 배 멀미에 대비해 돛자리, 멀미약 등을 단단히 준비했는데 다행히 파도가 잔잔하여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 2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동생이랑 이야기도 하고 군것질도 하고 호기심쟁이 할아버지와 배 구

석구석을 탐험했다.

드디어 저동항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는 순간, 이모가 맨 앞에서 가장 먼저 반겨주었다. 저동항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들뜬 표정으로 오고갔고 바닷가 쪽을 따라 오징어 배들이 쪽 늘어서 있어 울릉도에 온 실감이 났다. 좁고 구불구불 복잡한 도로를 따라 조금 빠져 나오니 파란 바다와 파란 하늘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이모가 중간 중간 촛대바위, 거북바위, 삼선바위, 킹콩바위, 노인바위 등에 얽힌 갖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모는 역시 최고의 가이드였다.

처음으로 간 ‘학포해수욕장’은 이모의 자랑대로 큰 학이 날개를 펴고 바다를 감싸고 있는 듯한 아늑한 해변이었다. 파도에 깎여 동글동글 유리구슬 같은 검은 돌멩이들이 깔려 있었다. 드디어 첫 바다수영~! 스노클링 장비로 바닷속을 보니 동화 속의 용궁세상 같았다. 작은 물고기들이 발가락에 뽀뽀를 마구 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방파제에 앉아 미끼를 끼우고 낚시를 하셨다. ‘벙에돔’이라는 까맣고 손바닥 만한 물고기를 한가득 잡았고 할머니는 솜씨자랑을 하시며 매운탕을 끓이셨다.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나라를 지키고 계셔 함께 오시지 못한 아빠가 마음에 걸렸다.

‘아빠도 매운탕을 무지 좋아하시는데…….’

돌아오는 길에 여기저기 터널 공사를 하고 있어 신호등이 꽤 많았다. 울릉도를 한 바퀴 도는 일주도로를 만드는 중인데 바위에 자꾸 구멍을 뚫고 시멘트를 바르고 하는 모습은 좀 걱정이 되었다. 공항도 곧 만들 거라는데 그럼 이모를 만나는 길은 더 쉬워지겠지만 제발 바위들을 더 이상 부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징어 파티로 저녁식사를 한 후 해안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하늘에 별들이 춤을 추며 반짝였고 반대편에서 보는 저동향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과 비슷해 보였다.

이모는 포항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크게 불러본다고 했다. 이모가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많이 슬프기도 하겠지만 우리 이모는 항상 씩씩한 모습으로 지낼 것이다. 또 낮에 봤던 친절하고 따뜻한 울릉도 분을 떠올리니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했다. 울릉도 주변에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관음도’, 1인 가구였던 노총각 아저씨가 얼마 전에 예쁜 신부를 맞았다는 ‘죽도’, 생각하면 왠지 애국심이 불끈 솟아오르는 ‘독도’ 같은 더 작은 섬들도 있다. 이런 섬들과 서로서로 의지하며 씩씩하게 동해바다를 지키고 있는 울릉도가 우리 이모의 모습과 참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학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아마도 나는 울릉도 홍보대사가 되어 있을 것 같다.